창종 78주년 법화종 "종도 단결·협력" 발원

6월 15일 대전 청사서 기념법회
종단 주요기관장 등 50여 명 참석
종정스님 "진정한 정상화" 당부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총무원은 6월 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종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는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종도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종단 발전을 발원하는 법석이었다. 종단 방침에 따라 규모는 예년보다 축소됐지만 종정 도선 스님,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비롯한 종단 기관장과 전국 지역교구원장 스님을 비롯한 주요소임자 스님들이 한자리에 결집했다.

법화종 총무원(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6월 15일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창종 7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관효 스님, 원로원 의장 보명 스님, 부의장 근파 스님, 의원 혜각 스님, 진덕 스님, 진파 스님, 중앙종회의장 서안 스님과 의원 도광 스님 외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다.

전국 지역교구에서도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스님과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스님,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스님,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스님과 교구종회의장 지우 스님,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스님,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스님,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스님,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 또 직할교구를 비롯한 각 사암 주지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종정 도선 스님은 "우리 종단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총본산을 지켜냈고, 해종세력을 몰아내는 등 정상화를 일궜지만, 여전히 진정한 정상화는 멀고도 멀다"며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잘못을 고쳐야 한다. 소수가 아닌 종도 모두의 협력으로 진정한 정상화를 완성하자"고 재차 당부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지난 2년 해종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고 종단 정상화는 이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들이 작은 불씨들로 남아 종단 재정을 궁핍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희망으로 다져온 애종심도 여전히 도출되지 않은 결과에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스님은 이날 종도에게 4가지 집행부의 다짐을 전하며 "집행부와 주요소임자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정진해 지난 2년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책들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4가지 다짐은 △화합과 단결 △포교와 교육 강화 △효율적인 종무행정 △총본산 안정사의 재건 등이다. 스님은 이러한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종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표창패와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관효 스님은 종단 정상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해 강원교구원장 승일 스님과 경북교구원장 해월 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어 비구니회 준비위원장 현진 스님과 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 법경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편 법화종은 11월 본종 종조 의천국사 다례재에 기하여 통일가사 점안법회를 봉행할 방침이다.

"대종사 강조한 목우가풍 선양 힘쓰겠다"

조계총림 송광사 남은당 현봉 대종사 49재 봉행

6월 18일…2000여 명 동참
"부단히 정진하겠다" 다짐


조계총림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49재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추모했다.

목우가풍(牧牛家風)으로 조계총림 사부대중의 수행을 이끌다 올해 5월 1일 원적에 든 조계총림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49재가 6월 18일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에서 봉행됐다.

전국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49재는 대종 5타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대중 삼배, 생전육성 청취,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향, 헌공, 헌다, 헌화, 조사, 추모사, 주지스님 인사말, 문도대표 인사말, 음성공양, 대중삼배,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은 조사를 통해 "남은당 현봉 대종사는 행자에게도 도반이었고 학인 납자에게도 도반이며 조계총림을 찾는 모든 이를 도반의 마음으로 맞이한 만인의 도반이자 스승이었다"며 "대종사께서는 이 사불이 귀재원융의 삶 그 자체였기에 스님이 가신 뒷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회고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도 "이 자리에 오기 전 스님이 복원하신 광원암을 둘러보고 선교의 행으로서 법답게 흐트러짐 없이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열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준 남은당 현봉 스님의 그 깊은 뜻을 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이경연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스님은 이제 저희 곁을 떠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조계산 계곡의 물은 흐르고 계절마다 피고지는 꽃처럼 그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라며 "이제 슬픔의 눈물은 거두고 당장 스님의 환한 미소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비록 방장스님께서는 적멸에 드셨지만, 오늘 49재에 운집한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스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던 보조국사 목우가풍을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붕존자 가르침 이어 희망 법음 전하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제28주기 추모다례재

전국 종도 300여명 운집
각지에서 추모동참 후원도



"우리들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께서는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제안하시고 세계불교초대법왕으로 봉대받아 불교사에 길이 남길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 일붕선교종 전 종도는 불교포교와 중흥, 그리고 인류에 구원과 희망의 법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세계 곳곳에서 불교포교에 전념한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사 서경보 스님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본산인 서울 일붕선원에서 열렸다.〈사진〉

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이 6월 14일 개최한 제28주기 추모다례재에는 종정 대륜 스님, 총무원장 혜일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원로의원 경원 스님 등 300여 종도가 함께해 일붕존자의 가르침을 기렸다.

종정 대륜 스님은 "미국에서 한국스님으로 최초로 설법하신 일붕 서경보 스님을 본받아 종도들이 더욱 노력해 불법을 널리 펴고 보다 많은 중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자.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동참해주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전 종도는 힘을 모아 개종조이신 큰스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고 계속 발전시켜 전 인류에게 구원과 희망의 법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9월 23일과 24일 천안 아산연수원에서 '종도 하계연수'를 열고 종단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창원 구룡사 우담바라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15일 성산아트홀 소극장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제로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주지 무성 스님) 우담바라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6월 15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린 정기연주회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찬불가, 불교무용, 난타장구를 선보였다. 또 퓨전 국악팀 '가이야'의 공연과 BTN불교TV 남성중창단이 찬조 출연해 음악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우담바라합창단은 추현철 지휘자와 임태린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춰 풍경소리, 부처님의 진리길, 마음고요 등의 찬불가를 연주했다. 또 우담바라합창단의 난타 장구 탑돌이, 몰라몰라, 귀의하는 마음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통도사 창원 포교당 주지 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찬불가는 음악으로써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음성공양을 통한 불교 포교의 한 방편"이라며 "구룡사 우담바라합창단의 음성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예술로 승화시킨 법음"이라고 격려했다.

전영숙 우담바라합창단장도 "정기연주회의 주제인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공감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 삼봉사 삼존불 개금점안법회

6월 15일, 경내 대웅전서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 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15일 경내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삼봉사 신도회 정경선 거사가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거룩하신 불보살의 가피로, 사부대중 모두가 지극한 신심과 원력행으로 세간의 복락을 성취하고, 중도실상의 도리를 체득해 지극한 복락 증득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존불 개금불사에 공로가 큰 정현규·정경상·이상복·유소희·한지창·황정민·정금순 불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삼봉사 주지 녹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삼봉사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통해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종도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희망과 감동을 주는 종단으로 그 위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러한 모습은 만 중생의 복전이 되어 불교중흥을 이루어내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일붕문도중앙회, 일붕존자 추모법회

일붕평화대상에 대우 스님 수상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스님의 탄신 110주년 및 원적 28주기를 맞아 추모대법회가 열렸다.〈사진〉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문장 혜운 스님)는 6월 14일 의령 봉황대 일붕사에서 '세계법왕 일붕 존자 탄신 110주년 및 원적 28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문장 혜운 스님(일붕사 회주)은 "봉황대 일붕사는 일붕 존자님께서 생전에 자주 오셔서 기도했던 일붕 존자의 성지도량으로, 2018년에 일붕 존자님 법보대전을 개관하고 일붕 존자님 유품 보관하고 있다"며 "일붕 존자의 흔적과 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의 한 사람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월인 스님과 배경화 이사장 등 일붕문도회 발전에 수고한 스님들에 대한 공로패가 전달됐다. 일붕평화대상에는 승려시인으로 유명한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이 수상했다. 혜명 스님 등 일붕문도회 지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호국영령 위령재

6월 17일 국립현충원서 봉행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이사장 연화 스님)는 6월 17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등 호국영령들을 위한 합동위령재를 개최했다.〈사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합동위령재는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가 주최, 세계불교승왕청, 대한호국불교승병단, CBS108TV연합불교방송이 공동주관했다.

합동위령재에는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이사장이자 세계불교승왕청 종정 연화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회장 법성 스님, 부회장 법붕 스님, 원로위원 효진 스님, 운영위원장 소운 스님, 사무총장 월암 스님 등 스님들과 칠불회, 월남참전국가유공자원로회, 고려다도회, 전국의용소방연합, 나라사랑국민연합, 국조선무회, 일월무연구회,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 등에서 온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연화 스님은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월남전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소방지원자 등 사회 곳곳의 시민들에게 감사하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격려사에서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대학 한마음단합대회 개최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열려



전북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인석)가 동문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다.〈사진〉

6월 15일 전주 덕진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백준기 부처님세상 이사장을 비롯해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박팔만 부회장, 장순금 전북불교대학 전법사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도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개회식에 이어 몸풀기체조, 가위바위보, 제기차기, 줄다리기, 컵 전달하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각설이 장훈과 가수 조미량의 공연,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으로 동문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석 총동문회장은 "오직 재가자들의 힘으로 자립해 운영하는 우리 대학의 힘은 동문 여러분의 원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며 "오늘 단합대회의 주인은 여러분이니 마음 편하게 즐기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